

## 아스널에 또 당한 토트넘…허술한 세트피스 수비 어찌나

등록 2024.09.16 13:36:45 | 수정 2024.09.16 13:52:24



[런던=AP/뉴스시스]토트넘 손흥민. 2024.09.15.

[서울=뉴스시스]안경남 기자 = 손흥민의 소속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(EPL) 토트넘 홋스퍼의 계속되는 세트피스 실점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.

토트넘은 15일(한국시각)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~2025시즌 EPL 4라운드 홈 경기에서 아스널에 0-1로 졌다.

시즌 첫 북런던더비에서 진 토트넘은 개막 4경기에서 1승(1무 2패)밖에 챙기지 못했다.

토트넘은 아스널을 상대로 64%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며 경기를 주도했으나,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다.

무려 15개의 슈팅을 시도했고, 이 중 5개가 상대 골문으로 향한 유효슈팅이었지만 마무리가 아쉬웠다.

반면 마르틴 외데고르, 데클란 라이스 등 주축 선수들의 빠진 아스널은 움츠리고 있다가 세트피스 한 방으로 승리를 따냈다.

승부는 후반 19분에 갈렸다. 부카요 사카가 올린 코너킥을 가브리엘 마갈랑이스가 헤더로 결승골을 터트렸다.

마갈랑이스를 맨마크하던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허술한 수비로 마갈랑이스를 놓쳤다.



[런던=AP/뉴스시스]아스널 수비수 마갈량이스. 2024.09.15.

토트넘의 세트피스 실점은 처음이 아니다. 지난 시즌에도 아스널에 코너킥으로만 2골을 내줬던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도 코너 킥에서 당했다.

손흥민도 경기 후 “지난 시즌에도 세트피스에서 2골을 내줬고, 오늘도 세트피스였다”고 아쉬워했다.

영국 매체 스카이스포츠에 따르면 토트넘은 지난 시즌부터 세트피스에서만 총 18골을 내줬는데, 이는 노팅엄 포레스트(23골) 다음으로 많은 실점이다.

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후 세트피스 수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.

토트넘 출신 축구 전문가 제이미 레드넵은 "토트넘은 세트피스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"고 말했다.

©공감언론 뉴스시스 knan90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